

■ 독자 투고

안동권문의 대화합과 발전을 생각하며



권주연 상임위원

새해 100만 후손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빕니다. 새
해를 맞아 안동권
문의 대화합과 발
전을 생각하며 몇
자 올립니다.

1) 과거 대종회가
안동 있을 때를 살펴봅니다.

시조님 묘소는 540여 년간 실종상태에
있다 1470년 평창군사(翁, 추밀공파, 17
世)께서 시조 태사공 묘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을 발견하고 설족회(設族會)란
조직을 구성하여 한식일과 10월 중정(中
丁)에 향사를 드린 이후, 1677년 설족회를
대종약소(大宗約所)로 변경하여 295년간
운영하였습니다. 1972년 다시 대종약소
(大宗約所)를 대종회로 변경하여 춘추 당
회를 총회로 하여 지역별, 파별로 종무위
원을 선임 의결 기구로 운영하던 중 1989
년 일본 후손들이 청도 남중공(叡中公) 춘
향(春享)에 참석 시 권오규 회장의 하소연
에 감응 귀국 후 성금을 모금하여 김포에
위당(位堂) 3,125여 평을 매입하여 당시
중앙총친회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고 임
대인이 매년 약 2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안동 대종회로 보내오자 안동 대종회에서
는 이를 춘추제례를 드리는 제수비(祭需
費)로 사용했습니다.

2) 2005년부터 대종회를 서울로 옮기자
는 서울중앙총친회 요구를 거절하고 지나
는 중 권오규회장이 갑자기 별세하여 청
도 남중공 춘향제를 마치고 임시 대당회
를 열어 대종회장에 권기달님을 선출함에
중앙 총친회에서 재판청구로 2007년 재판
절차를 거쳐 안동권씨 중앙총친회와 안동
대종회를 2011년 6월 통합하여 최고 의결
기구로 확대 회장단을 두었고, 이외 운영
위원회를 두어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부회
장단, 종무회의의 추진 형식으로 운영했
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재일(在日) 후
손들이 남중공 위당으로 기증한 3,125평
중 1,900여 평을 매각하여 재일(在日) 후
손들이 항의자 대종회를 방문하여 항의하
는 부끄러운 모습도 남겼습니다.

그다음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에서 추
인하는 등의 순서로 종사를 운영하면서
각 직책별로 년회비를 100만~ 20만원으
로 납부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총회시 결산
서 중 각 직위 분들의 납부내역이 없어 아
쉽습니다. 특히 상임위원 분들은 종사의
제일 중요한 의결권을 갖는 분들로 능동
재사 춘추제례 시 참석하지 못하면 제례
성금이라도 제례 전용 예금좌에 입금하
는 모습도 없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재사
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을 갖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결

산사에 상임위원들의 납부 내용이라도 종
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기록하시기 바랍
니다.

대종회 조직은 회비 납부를 의무한 상임
위원 30여 명, 부회장 61명, 이사 94명, 종
무위원은 추밀공파와 북야공파 각 10인,
부정공파 8인, 좌윤공파 5인, 검교공파 5
인, 그 외 각 파는 3인 등으로 조직원을 구
성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회비 납부를 공고하는 종보 기사를
보면 납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임원
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대종회 종시(宗是) 첫 번째는 송조이
념(崇祖理念)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이력 회장을 제외한 세 분은 임기 중 거
창한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는 상호 존중의 모습은 찾아보기 드물어
안타깝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임원 상호
간에 중요 사안에 대해 격론을 벌이는 것
은 좋지만 감정이 격해져 고함까지 지르
며 힘겨투기하는 모습은 불행사납습니다.
심지어 현 회장 2년 차에는 물러나신 권해
옥 전 회장과 수석 상임위원 한 분이 2개
월 동안 현 회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해프
닝도 있었습니다.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
지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현
회장이 3개월 동안 병가를 내야만 하는 초
유의 사태가 벌어진 사실은 종사에 부끄
러운 오점으로 보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품위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
다. 어떤 임원은 대종회 SNS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자기 자랑 위주로 하
는 분도 간혹 보입니다. 대종회 SNS는 공
적인 장소입니다. 임원분들께서는 SNS가
본래의 목적인 공적인 기능을 하느 데 활
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다음 회기에는
상임위원이 되시는 분은 정조 8년 갑진
(甲辰, 1784년) 죽림공(竹林公, 권산해權
山海, 1403~1456)과 귀봉공(龜峰公, 권덕
린權德麟, 1529~1573)을 좌우 배향으로
시조님을 주벽(主壁)으로 모시고 경주 유
림에서 관리하는 운곡서원(雲谷書院) 제
례에 한 번이라도 참석할 성의 있는 분들
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4) 안동권문은 1989년 제1회 안동권
씨 청장년체육대회를 안동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이래, 2024년에는 안동에서 제
33회 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영주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예전처럼 못한 대형 산물로 인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
다. 올해 영주에서 안동권씨 청장년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그다음 개최할 지
역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
를 비롯한 여러 족친들이 이리다가 체육
대회 자체가 아예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각 지역별로 회원은 점점 고령화되고,
젊은 회원 가입은 미미한 실정이라서 지
역별 청장년회의 사정에 따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모두
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
동권문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안동
권씨 전국 청장년체육대회의 명맥을 유지
하는 방향으로 대종회를 비롯한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에서 중지를 모아 이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
법의 하나로 지금까지는 1개의 지역에서
전국청장년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는 3
개 지역을 합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
합니다. 안동권씨 청장년체육대회는 안동
권문의 대화합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 대종회, 파종회, 지역총친회,
청장년회 등에서 인쇄물을 제작할 때 시
조님 묘소가 포함되면 반드시 '안동시 문
화유산 124호'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관할구역에 많은 성씨의 시조
묘소가 있지만 대장 문화유산은 우리 시
조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2
년 정도 노력하였습니다. 시조님 묘역 관
리에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경성북도 문
화 유산지정을 받고 다음 일정 기간이 지
나면 국가유산이 되는데 우리 후세대에
는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안동시 문화유
산 지정은 후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
리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했는데, 권
해옥 전 회장이 안동에 왔을 때 그동안 문
화유산 지정에 수고했다고 1백만원의 건
네주기에 극구 사양해도 받지고 가는 바
람에 우편환으로 대종회에 다시 돌려보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용
인의 권웅렬(權雄烈) 족장님이 2백만원을
보내와 감사히 받아 쓰고 아직까지 찾아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오년
(丙午年)에는 얼굴도 뵈고 인사하러 가련
니다. 도지정 평가서 작성 비용이 전국 동
일하게 3천만원 인데 관심을 갖는 분이 많
아야 되는데 이도 걱정되네요.

안동권문을 이끌어 가야할 상임위원회
가 오히려 말썽을 일으키고 종사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촌로(村老)의 투고에 반론
이 있으신 분은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년의 삶의 방정식

버티는 힘보다 흘러보내는 기술 : 후반전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역설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북야공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각
함이 만들어내는 것은 걱정, 그림자뿐
이며, 이는 결국 에너지를 소진시켜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
문하고 답을 찾는 자문자답(自問自答)의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의 무게를 덜
어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

혜를 키워야 합니다.

후반전의 지혜 : 버티는 힘에서 흘러보내는 기술로의 전환

신중년의 삶이 이전 시기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은 바
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버티는 힘’보다 ‘흘
려보내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 기술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실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며, 스스로를
소모하는 감정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대신, 그 돌을 가볍게 흘러보내어 스스로
의 물길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동안 외부
환경에 맞추어 강하게 서 있었러 했던 과거의 방식을 넘어, 마
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서는 청출여람(靑出於藍)의 지혜입니다.
이 기술을 연마할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하루는 평안하
집니다.

맺음말 : 덜어냄의 지혜, 후반전 인생의 평안을 완성하며

우리가 나눈 지혜는 외부의 힘으로 버티던 삶에서,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깊은 가르침
을 줍니다. 신중년의 삶의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은 복잡한 연
산이 아닌, 오직 덜어냄과 흘러보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
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불필요한 짐을 내려
놓고, 자신에게 집중하여 삶의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 이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입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흘려보내는 기술’을 연마하여, 남은
삶이 가장 가볍고 자유로우며 평안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도 능우회 정기총회 및 신임 회장단 선출

안동권씨능우회(陵優會: 회장 권오관)가 주최하는 “2025년
도 능우회 정기총회”가 12월 9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태사길
71(정하동)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회관’ 1층에서 능우회원 20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권중익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시조묘
소 망배, 상응례, 회장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신임회
장 인사,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오관 회장은 인사말
에서 “1년 임기를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은 회원님
들의 협조덕분”이라고 말하고 “임기 중 권기락 사무국장이 고인
이 되는 바람에 무척 송구스럽다”며 애석해 했다. 이어 올 한 해
동안 행사를 치른 각종 경과보고 16건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권오
직 감사의 감사보고, 권중익 사무국장이 1년 간 사용한 수입과 지
출 내역 등 결산보고를 소상히 보고했다.

임원 개설텐선 2026년 제16대 신임회장엔 권오갑씨(사회복지
법인 애명 사무총장)를, 부회장 권태성, 감사 권오관, 사무국장 권
중익씨를 각각 선출했다. 신임회장 권오갑씨(좌윤공파)는 영주
종고를 졸업한 후 안동시청에 21년 근무, 사회복지법인 애명에서



권오갑 신임회장

17년 째 근무하고 있다. 권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오
래하니 회장이 돌아온다며
농담을 한 후 열심히 일하겠
으니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고인이 된
권기락 전 능우회 사무국장
을 위해 회원들이 묵념을 올
리기도 했다.

회의가 끝나자 화기에애한 분

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안동시장으로 출마할 예정
인 권광택 경북도위원과 권백신씨(전 코레일관광개발(주) 대표
이사) 등 2명이 인사차 둘러 인사말을 하고 떠났다.

이날 능곡회(회장 권기섭)에서 찬조금 20만 원과 최근 아들 결
혼식을 올린 권기원 회원이 찬조금 20만 원을 각각 냈다.

권영건 보도부장

乙巳年 秋享 獻誠金

(2025.12. 04奉行)

番號	姓名 및 團體	金 額	地域	備 考
1	權 泰 潤	2,000,000	安東	始祖所 首任
2	權 敬 雄	500,000	安東	郎中所 首任
3	權 武 倬	500,000	榮州	檢校公派
4	權 東 遠	500,000	大田	始祖 終獻
5	權 寧 瑞	400,000	安東	郎中 亞獻
6	權 寧 昌	300,000	榮州	大宗會長
7	權 斗 燦	300,000	寧海	始祖 亞獻
8	權 泰 殷	300,000	龜尾	郎中 終獻
9	權 사 모	300,000	安東	會長:權五萬
10	參議公宗中	300,000	大田	理事長:權東遠
11	炭翁公宗中	300,000	大田	理事長:權仁淳
12	派宗會長協議會	200,000	安東	會長:權重根
13	副戶長公派宗會	200,000	安東	會長:權憲宗
14	僕射公派宗會	200,000	安東	會長:權寧祥
15	檢校公派宗會	200,000	尙州	會長:權正澤
16	正朔公派宗會	200,000	安東	會長:權五吉
17	副正公派宗會	200,000	盈德	會長:權孝俊
18	別將公派宗會	200,000	安東	會長:權奇秀
19	同正公派宗會	200,000	安東	會長:權寧俊
20	梅軒公宗中	200,000	서울	理事長:權容鎬
21	安東陵古會	200,000	安東	會長:權奇燮
22	大田宗親會	200,000	大田	會長:權容基
23	尙州宗親會	200,000	尙州	會長:權容培
24	大邱宗親會	200,000	大邱	會長:權五燮

番號	姓名 및 團體	金 額	地域	備 考
25	釜山宗親會	200,000	釜山	會長:權英鉉
26	陰城宗親會	200,000	陰城	會長:權五德
27	宗派宗會	200,000	大邱	會長:權慶瑛
28	慶山宗親會	200,000	慶山	會長:權五興
29	給事中公派宗會	100,000	原州	會長:權旭亨
30	大邱個人택시宗親會	100,000	대구	樞密公派
31	陝川郡宗親會	100,000	陝川	會長:權寧旭
32	安養宗親會	100,000	安養	會長:權龍俊
33	安東靑石宗中	100,000	安東	僕射公派
34	安東大瓢門中	100,000	安東	僕射公派
35	馬昌鎭宗親會	100,000	昌原	會長:權五秀
36	本鄉元老會	100,000	安東	會長:權正達
37	安東宗親會元老院	100,000	安東	議長:權在柱
38	安東會長親睦會	100,000	安東	會長:權由衍
39	釜山青年會	100,000	釜山	會長:權富鉉
40	釜山壯年會	100,000	釜山	會長:權寧佑
41	釜山婦女會	100,000	釜山	會長:權雙姬
42	權 由 衍	100,000	安東	常任委員
43	權 宗 衡	200,000	寧海	始祖 亞獻(單)
44	權 奇 鳳	200,000	龜尾	齋有司
45	權 寧 範	150,000	山淸	齋有司
46	權 赫 祚	100,000	醴泉	齋有司
47	權 相 勳	100,000	醴泉	齋有司
48	權 五 吉	100,000	安東	齋有司

番號	姓名 및 團體	金 額	地域	備 考
49	權 五 岳	100,000	榮州	始祖執禮
50	權 重 守	100,000	榮州	始祖祝官
51	權 容 柱	100,000	安東	副正公派
52	權 世 穆	100,000	義城	僕射公派
53	權 伯 信	100,000	安東	僕射公派
54	權 正 杰	100,000	安養	常任委員
55	權 寧 卓	100,000	安東	僕射公派
56	權 春 植	100,000	天安	樞密公派
57	權 寧 福	100,000	서울	서울宗親會長
58	權 大 殷	100,000	永川	僕射公派
59	權 秀 雄	100,000	서울	常任委員
60	權 奉 煥	100,000	大邱	僕射公派
61	權 正 澤	100,000	尙州	檢校公派宗會長
62	權 舜 容	100,000	서울	樞密公派
63	權 容 鎬	100,000	서울	梅軒公宗中理事長
64	權 五 熏	100,000	大邱	大邱靑壯年會
65	權 寧 鐸	100,000	大邱	中允公派
66	權 順 伊	100,000	大邱	中允公派
67	權 赫 重	50,000	서울	樞密公派
68	權 純 吉	50,000	서울	樞密公派
69	權 五 薰	50,000	大邱	
70	權 憲 承	50,000	伊山	
71	權 大 殷	-	永川	청주 2斗
合 計				13,350,000

안동권씨 대종회